

일본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

- 이세이 미야케와 요지 야마모토의 디자인 비교를 중심으로

On Ethnic Images shown in Japanese Designers' Collections

- Focused on Design Comparison between Issey Miyake and Yohji Yamamoto

변미연* · 이지은 · 이인성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Byun Mi-Yeon · Lee Ji-Eun · Lee In-Seong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Abstract

The globalization phenomenon of the 21st century has acted as the catalyst to accept diversity, and a new cultural code, ethnic, has emerged in the modern society by the pursuit of diversity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and culture. Unlike preceding studies focusing on ethnic concepts and design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comparative analyses on ethnic trends shown in the collections of two designers, Issey Miyake and Yohji Yamamoto, who have strong ethnic consciousness. It is considere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wo designers' collections with ethnic images will be a guide to indicate the fashion philosophy of the two designers in the category of Japan, and this will be useful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ization identity which is needed in the future fashion industry.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thnic code has been so widely accepted by the world designers in a very positive form to accept foreign cultures that the ethnic code is now showing an aspect of eclecticism.

Second, designer Issey Miyake has been pursuing his own ethnic style based on his philosophy to liberate humans through continuous researches and efforts on clothes.

Third, Yohji Yamamoto has been pursuing a Japanese ethnic style as a designer who has expressed the unique beauty of Japan from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traditional clothes.

Fourth,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es on collections, they both have pursued an ethnic style based on the uniqu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Japan, but it was also found that their fashion philosophy has developed differently in the same category of ethnic trend.

Key Words : Issey Miyake, Yohji Yamamoto, ethnic, globalization phenomenon, national characteristics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21세기는, 어느 특정 분야의 한 현상을 그 시대의 대표 아이콘으로 규정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 현

상은 이러한 다양성의 공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곧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에스닉(Ethnic)이라는 새로운 문화 코드로 현대사회에 나타나게 되었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계에서는 타 문화의 수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 전 세계 디자이너들에게 수용되어 세기말 현상과 맞물린 하나의 절충주의적 양상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패션을 비롯한 타 분야에

* Corresponding author: Byun Mi-Yeon
Tel: 02) 3277-4359, Fax: 02) 3277-2852
E-mail: 8291004@hanmail.net

이르기 까지 매우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동양을 비롯한 제3세계로의 관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동양 최고의 패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전 세계 패션계를 이끌고 있는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은 일본 고유의 스타일을 기본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에스닉 패션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특히 민속적 미의식을 강하게 표출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그 특유의 스타일을 통해 에스닉 이미지를 발산하는 디자이너로 평가되고 있다.

에스닉의 독창적인 미학으로 인해 학계에서는 지금도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상아(2003)와 조원정(2002)은 에스닉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의상 디자인 및 속옷 디자인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영옥(2005)은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패션의 특성을 분석하여 에스닉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의 개념과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두었던 선행연구의 흐름과는 다른 민족의식이 강한 두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와 요지 야마모토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두 디자이너의 에스닉 비교연구를 통해 일본이라는 민족성을 재조명하고자 함이며 둘째, 최근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에스닉 트렌드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자 함이다.

에스닉 이미지를 표출하는 두 디자이너의 컬렉션 비교 분석은 일본이라는 한 카테고리 속에 두 디자이너의 패션철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며, 앞으로 패션이 나아가야 할 세계화 정체성 확립의 기초자료로 그 의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일본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에 관한 고찰로, 같은 시기 파리에서 공부하여 일본 이미지의 세계화에 앞장섰던 두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와 요지 야마모토를 선정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에스닉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디자이너에 대한 일반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또한 디자이너의 최근 경향을 살피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컬렉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20명을 통해 컬렉션의 이미지 분류를 실시하였다. 분류결과 네 가지의 이미지인 절충적, 전통적, 자연적, 초현실적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각 이미지에 따른 두 디자이너

의 에스닉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디자이너의 에스닉 스타일에 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여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민족적 의식을 고찰하였다.

II. 에스닉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에스닉(Ethnic)의 개념

에스닉의 사전적 의미는 '민족적인, 이방인의, 이도교의'를 뜻하며 미국과 서부유럽을 제외한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민속적인 독특한 색, 장식, 무늬 등의 것을 의미한다. 즉, 비기독교적인 모든 종교를 기반으로한 지역에서 싹튼 문화이므로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은 물론 샤머니즘적 종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이연희, 이운영 2002). 비록 기독교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토착 원주민들의 문화는 에스닉의 범주에 포함되어지기에 에스닉은 더 토속적이고, 동양적인 의미로 나타나 해석되어 지고 있으며, 이는 패션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의 접목으로 인해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왔다.

에스닉 룩(Ethnic look)은 유럽민족을 제외한 여러 나라 민족 고유의 복장에서 영감을 받아 서양패션에 접목시켜 응용한 것으로, 단순히 아시아를 지칭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몽고, 인도의 민족적인 스타일, 그리고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스타일이 포함된다. 즉, 민족의상이 지니고 있는 소박한 소재와 아이템을 이용해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이고 민속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패션 스타일을 의미한다.

현대 패션사에 나타나는 에스닉은 시기별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시작이 바로 20세기에 오리엔탈리즘과 러시아 발레단에서 영향을 받은 폴 뿌아레(Paul Poiret)의 기모노 풍 드레스, 중동 풍의 미나레 가운, 하렘 팬츠 등의 이국적인 디자인을 언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차 세계 대전 후로 폴 뿌아레(Paul Poiret)의 것보다는 하위집단에 의한 에스닉 룩이었으며, 짐시 스타일이나 레이어드 스타일을 이용해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세 번째 시기인 1970년대에는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에스닉을 표현하였으며, 그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카다 켄조(Takada Kenzo)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 까지를 볼 수 있는데, 1980년대의 에스닉 룩은 대표적인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에 의한 일본풍의 에스닉에서 출발

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각국의 민속 복식, 인도의 사리나 초리, 모로코의 하렘팬츠와 터번,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장신구, 중국의 치파오, 동남아시아의 아오자이 등이 재해석 되어 그들의 작품에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2. 에스닉 이미지의 분류

에스닉의 신비로움은 패션 분야에서의 다양한 코드와 결합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계에서 또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힌 에스닉은 연구자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의 에스닉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패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에스닉'의 단어에서 떠오르는 형용사의 이미지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상위 네 가지 이미지인 절충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초현실적 이미지로 분류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

1) 절충적 이미지

현대 사회는 개방화, 다양화, 국제화 되어가면서 점차 형식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다원화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도 탈 문화적이고 다원화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미지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단순히 서양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제3세계 즉, 소외되었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구미지역의 민속복식의 특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복식을 재해석 하고 적절히 혼합

하여 하나의 통일된 절충적 이미지를 복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복식 양상을 절충적 이미지라고 한다.

서양에 의해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다른 문화를 동경하며 그들의 다양한 역사, 문화, 인종, 종교 등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인정하고 차용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절충적인 새로운 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국적인 에스닉은 절충적 이미지를 선택함에 있어 단일국가와 민족이 아닌 여러 나라가 혼재되어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기도 하나,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망으로 구축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자연스러운 탈 장르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최영옥, 2005).

2) 전통적 이미지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거부반응과 불안정감이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만큼 과거로의 회귀욕망과 향수가 불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이 현대패션에서는 전통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민족 고유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전통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상의 전통적이고 복고적인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하여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새로운 해석을 통해 패션에 접목 시켜 현대화 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다양한 영감을 주는 전통적인 요소는 살리되, 디테일, 소재, 실루엣 등을 변형하여 단순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에스닉 이미지분류

연구자	제목(연도)	에스닉 트렌드의 분류 방법
박상아	에스닉 트렌드의 응용성에 관한 연구 (2003)	절충주의적 요소
		전통적인 요소
		자연주의적 요소
		미래주의적 요소
이춘희,신상옥	현대복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적 분류 (2000)	차별적 이미지
		신비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과거지향적 이미지
최영옥	현대 에스닉 패션의 특성 분석 (2005)	복합지향적 이미지
		절충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신비적 이미지

한 과거의 모방이 아닌, 현대에 맞도록 재해석 하고 변형하여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이미지를 뜻한다.

이는, 패션에서의 서양 중심적이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이 제3세계나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다른 민족의 문화와 가치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서양 우월주의적 상하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3) 자연적 이미지

현대 사회가 기계화, 공업화됨에 따라 인간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다양한 사회병폐가 생겼으며, 그 중 하나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지구환경 보호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60년대부터는 생태계의 뜻을 가진 이콜로지(Ecology)가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에스닉 이미지에서도 자연적 이미지의 영향으로 소재, 색상, 무늬 등에서 이콜로지화 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자연을 주제로 친 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원시적인 재료들 또한 컬렉션에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천연염색을 이용하거나 자연 그대로의 색을 이용하여 동·식물 등 자연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즉, 에스닉의 자연적 이미지는 편안한 실루엣, 친 환경적인 천연소재 등을 이용하여 순수한 자연으로의 회귀와 순수한 원시시대에 대한 동경을 '옷'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 초현실적 이미지

고정관념을 분해하여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어우러져 미래지향적이고 신비한 이미지가 역설적인 의미로서 나타나게 된 초현실적 이미지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의한 권력과 성에 관한 은유를 통해 서양의 지배를 기다리는 존재로 해석되어 몸의 지나친 노출과 과장된 색조의 사용으로 패션을 표현하고 있다(이영민, 이연희, 2005).

따라서 에스닉에서 나타나는 초현실적 이미지는 옷의 구성요소를 분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하거나 기본적인 구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복식형태인 비대칭, 불균형, 불완전의 형태 및 지나치게 큰 사이즈, 과도한 노출이나 속옷의 겹옷화를 통해 보여 지고 있다(박상아, 2003).

Ⅲ. 디자이너 컬렉션에 관한 고찰

1.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컬렉션

1) 이세이 미야케의 배경

이세이 미야케는 1938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군인인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는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던 전시 상황이었기에, 히로시마에서 자란 이세이 미야케로서는 서양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여러 패션 잡지와 포스터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인 철학의 성립 배경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당시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로 갔으며, 파리 의상 조합학교(The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에서 패션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가 파리에서 오프 꾸뛰르 패션을 공부하던 무렵과 1968년 5월 파리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가 일치하였으며, 그 당시 그가 보고 느꼈던 자유와 개성을 소리치던 파리의 시민들은 훗날 그의 디자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당시에 그는 '진 또는 티셔츠처럼 누구든지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을 만들자'라는 자신의 패션 목표를 확립하게 되었다(Mark Holborn, 1995).

그 후, 이세이 미야케는 파리의 오프 꾸뛰르 패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자신의 패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1969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그는 지오프리 빈(Geoffery Beene)사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실용적인 기성복을 경험하게 되고, 미국의 단순한 기성복을 동경하게 되었다.

1970년 일본으로 돌아와 미야케 디자인 스튜디오(Miyake Design Studio)를 설립하게 되며, 1973년 파리 컬렉션을 기점으로 세계 패션에 입문하게 된다. 그는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의 실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하였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두 가지의 특징, '플리츠(Pleats)'와 '한 장의 천(A Piece of Cloth)'을 이용하여 실용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전개하며 이세이 미야케 스타일을 정립하게 되었다. 1990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전시회「Energieen」에서 발표하였던 그의 첫 번째 스타일인 '플리츠 플리츠(pleats please)'는 여성의 체형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는 오직 인간의 움직임만을 통해서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독특한 조형미를 표출하며 신체를 구속하는 의복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서양의 다트나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한 서양의 패턴에서 벗어나 한 장의 천으로 몸을 감싸는 일본의 기

모노의 평면재단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이 그의 또 하나의 디자인 테마인 '한 장의 천(A Piece of Cloth)'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는 1999년 디자이너 나오키 다키자와(Naoki Takizawa)에게 그의 브랜드를 내어 준 후, 옷을 입는 사람이 직접 재단하여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새로운 브랜드 'A-Poc' 개발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듯 이세이 미야케는 옷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대중을 위한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며 독특한 실험정신을 통해 옷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에 이르렀다.

2)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

① 절충적 이미지

최근 5년간 이세이 미야케의 에스닉 스타일은 90년대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플리즈'와 '한 장의 천'의 조형적 양상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의 절충적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동양의 아이템과 서양의 아이템과의 조화로 표출된 오리엔탈 스타일의 전형으로, 그 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오리엔탈 랩 스커트와 중세 서양 이미지 재킷은 시간상 뿐만 아니라 지리상으로도 이질감이 큰 아이템의 코디네이션이나, 그 특유의 색상조화는 본 작품 아이템들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해주어 절충적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모던한 테일러드 수트에 사리 소매 스타일을 접목한 [그림 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엠파이어 스타일 원피스 드레스와 동양의 대(帶)의 결합은 이세이 미야케의 원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충성의

양상은 에스닉을 더욱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중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다.

② 전통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는 각국의 고유한 미를 '옷'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레드와 화이트의 조화로 강하지만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포하는 [그림 4]는 제3세계로의 시선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이를 재해석한 작품들은 현재에도 꾸준히 컬렉션에 등장하고 있다[그림 5]. 이렇듯 제3세계의 미에 집중하고 있는 이세이 미야케도 민족성이 강한 일본 디자이너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듯, [그림 6]과 같은 소위 '일본 스타일' 의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모노 혹은 사무라이 복장의 냄새가 짙은 색으로 발표하는 일본 디자이너들만의 스타일과는 다른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표출되는 특징을 갖는다.

③ 자연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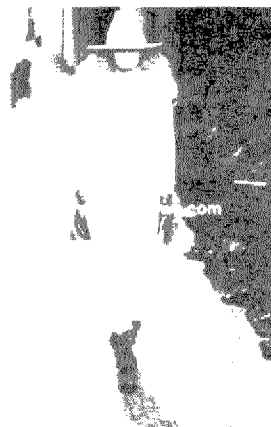
자연 그대로의 오브제를 이용해 컬렉션에 등장했던 그는 인위적이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시각적인 안정감과 패션 작품으로서의 조형성 두 가지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7]. 또한 그는 다양한 우주 행성들의 프린트를 통해 인간으로부터의 환경수호적인 메시지를 표방하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옷'을 통한 무언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그림 8]. 한편, 2006년 S/S 컬렉션에서는 대나무를 무대에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녹색이 주는 자연적인 안정감과 꾸미지 않은 작품들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표출하며 새로운 스타일인 자연적 이미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림 1] 2002 F/W Paris Collection



[그림 2] 2003 S/S Paris Collection



[그림 3] 2005 F/W Paris Collection



[그림 4] 2003 S/S Pari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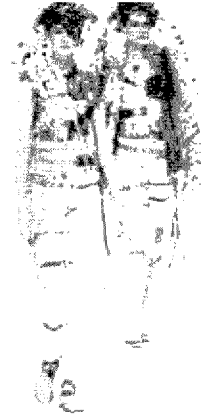
[그림 5] 2005 S/S Paris Collection



[그림 6] 2006 S/S Paris Collection



[그림 7] 2002 S/S Paris Collection



[그림 8] 2004 S/S Paris Collection



[그림 9] 2006 S/S Paris Collection



[그림 10] 2002 F/W Paris Collection



[그림 11] 2003 S/S Paris Collection



[그림 12] 2004 S/S Paris Collection

④ 초현실적 이미지

현실에 반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초현실적 이미지는 이세이 미야케의 심플하면서도 단아한 형태의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패턴과의 조화로, 과장되지 않은 조형미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10]에서는 광택소재의 자켓과 비즈의 디테일로 소재 자체가 내뿜는 신비감에 포커스를 맞춰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재와 상반되는 미니멀한 디자인은 [그림 1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스루룩을 이용한 기하학적 문양의 재해석은 초현실적 에스닉을 더욱 신비적 이미지로 보여주며 화려한 미니멀리즘을 표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11]과 같은 이질적 소재의 믹스매치도 동양풍의 양상으로 컬렉션에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2.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컬렉션

1) 요지 야마모토의 배경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요지 야마모토는 도쿄 가부키조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여의고 양장점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문화 복장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 당시 최고령의 유일한 남학생이었던 그에게는 고난의 시절이었으며, 훗날 이러한 감정은 그의 작품에 어두운 색상으로 나타나 요지 야마모토만의 색을 형성하게 된다.

파리에서의 8개월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1970년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72년 Y's(와이즈)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디자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패션철학은 인간을 생각하는 의복, 즉 인간성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는 옷이 매장에 팔려 사람들이 입지



[그림 13] 2005 S/S Paris Collection



[그림 14] 2006 S/S Paris Collection



[그림 15] 2006 F/W Paris Collection



[그림 16] 2002 F/W Paris Collection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패션은 비즈니스다’라고 정의 내렸다.

이를 배경으로 요지 야마모토는 1977년 도쿄에서 첫 번째 컬렉션을 개최하였으며, 81년 파리 컬렉션에 참가하게 된다. 1982년 참가한 뉴욕컬렉션은 기존의 서양의 의복형태를 거부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그의 디자인과 일본을 알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동양적인 요소나 선을 서양 옷에 도입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는 1996년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로 선정됨으로써 그의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요지 야마모토의 디자인 특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첫째로, 좌우 대칭으로 딱 떨어지는 서양의 옷과는 달리 두르기, 걸치기, 매기 등의 비구조적인 헐렁한 착장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로, 형식을 거부한 그의 디자인 특징을 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옆 솔기선이나 다투, 밑단 등의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구조적 선을 탈피한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빈곤의 미학으로 미완성된 옷이나 소재의 장식이 배제된 옷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일본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흑색의 이미지를 통해 어둡고 청빈한 느낌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는 서양복식의 전통과 원칙을 깨는 혁명적인 실험 주의자로 동양의 문화를 모티브로 세계 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패션의 예술성, 조형성을 표현하는,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에서 일본 고유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제시한 디자이너로 평가되고 있다(김소형, 2000).

2)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

① 절충적 이미지

요지 야마모토의 절충성은 일본 특유의 미의식의 표출에서 시작된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일본의 전통 허리장식 오비(帯)는 비대칭적인 라인과의 이질적인 혼합으로의 절충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네크라인 부위의 큰 리본장식 또한 일본전통 팬츠의 변형 및 테일러드 재킷과 함께 코디네이션 되어 일본과의 결합을 통한 절충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4]. 이러한 경향은 [그림 15]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반은 일본 고유의 오비장식을, 반은 입혀지지 않은 서양 코트를 매치하여 요지 야마모토 특유의 비대칭적 라인과 함께 모노톤의 어두운 색채감 및 일본의 민족성을 내재한 절충주의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전통적 이미지

요지 야마모토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민족성이 강한 그는 일본의 미를 컬렉션에 강하게 표출하는 디자이너이다. 실제적으로 그의 컬렉션에는 대부분 전통적 이미지 요소가 내재해 있으며 [그림 16]에서와 같이 기모노풍의 색채와 문양을 통해 일본의 기모노의 상징을 컬렉션에서 두드러지게 표방하고 있다. 또한 사무라이 풍의 전사적 이미지도 그의 디자인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이며, [그림 17]에서와 같이 블랙을 중심으로 한 모노톤의 색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지 야마모토만의 색채는 화려한 기모노의 색채와는 상반된 현대의 모던함을 블랙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그림 18]의 작품 또한 민족성 경향이 짙은 전통의상을 블랙의 상징성을 통해 발표하여 ‘모던한 일본풍’의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2003 S/S Paris Collection



[그림 18] 2003 S/S Paris Collection



[그림 19] 2002 S/S Pari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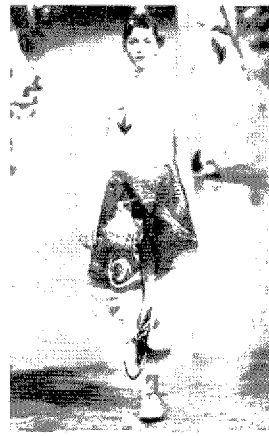
[그림 20] 2004 F/W Paris Collection



[그림 21] 2006 F/W Paris Collection



[그림 22] 2002 S/S Paris Collection



[그림 23] 2003 S/S Paris Collection



[그림 24] 2005 F/W Paris Collection

③ 자연적 이미지

요지 야마모토는 벌크한 실루엣을 기본으로 컬렉션을 진행하였으나 자연적 이미지에서 만큼은 간소되어 나타났다. [그림 19]의 화이트 머메이드라인 드레스는 동물과 곤충을 모티브로 한 프린트로 에스닉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적 프린트의 요소는 [그림 2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6년의 F/W에 나타나고 있는 천연염색은 디자이너 특유의 고유색을 발산하고 있으며, 특히 투톤의 그라데이션 효과로 자연이 병폐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시각적으로 잘 표출하였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그림 21].

④ 초현실적 이미지

그의 모노톤의 디자인 전개는 초현실적 이미지에서 화려한 컬러로 등장하며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의 이면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그림 22]에서 잘

드러나 폴드와 바이올렛의 메치로 신비한 동양의 느낌을 불러오며 시각적인 자극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그림 23], [그림 24]와 같이 비치는 소재를 활용한 초현실적 이미지도 찾아 볼 수 있으며, 노출과 감춤의 해학적인 미와 기하학적 문양을 소재로 한 신비적인 작품들 또한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IV. 에스닉 이미지 비교분석

1. 절충적 이미지

서양의 시각에서 벗어나 제3세계에 눈을 돌려 탈 문화적이고 다원화 된 스타일인 절충적 이미지는 그들을 재 해석하여 적절히 혼합된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아이템과의 믹스매치로 하나의 새로운 스타일을 정립하고 있는 디자이너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제3세계는 인도를 비롯한 비관심속의 국가였으며, 그 민족성이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미학을 재창조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민족성을 반영하는 만큼 다양한 색채, 문양들이 결합되어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세이 미야케가 타문화를 수용을 적극적으로, 모티브를 그대로 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지 야마모토는 절충적 요소의 근본을 일본으로 집중하여 에스닉을 풀어나가고 있으며, 디자이너 특유의 색채인 노노톤에 초점을 두어 컬렉션을 전개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그만의 강한 일본 민족성은 각각의 이미지에서도 드러나 요지 야마모토의 기본 디자인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양 디자이너들에게 일본 패션의 모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본 패션의 세계화에 기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전통적 이미지

다양한 민족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적 이미지는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근본이 절충성과 그 내재된 의미가 비슷하며 디자이너들도 절충성과 비슷한 양상으로 해석해나가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민족복식의 재현에서부터 현대와의 결합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제3세계의 소외된 민족적 색채를 통한 컬렉션의 전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절충적 이미지와도 중복되는 부분으로, 디자이너의 모티브의 원천을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적 경향은 요지 야마모토의 디자인에서 일본 민족성의 근원 표출로 시도되었으며, 다른 전통의 재현요소는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기모노와 사무라이 복식은 그의 디자인 기본이 되는 근본으로 작용하여 파리 컬렉션에서 일본 스타일을 알리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요지 야마모토는 일본 특유의 미학을 내재하는 대표 디자이너이자 일본의 미학을 세계에 전파시킨 민족적인 디자이너로 평가되고 있다.

3. 자연적 이미지

현대사회의 병폐로 인한 패션계의 관심은 자연을 주제로 한 컬렉션 개최 및 작품 발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분

야에서 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자연 오브제의 사용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안정감과 꾸미지 않은 작품들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표출하여 자연적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장되지 않은 편안한 실루엣은 자연을 내재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제시로 파리 컬렉션에 발표되었다. 특히 2006년의 컬렉션은 전체 무대를 대나무로 장식하여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모토로 전개되었으며, 1960년대 에콜로지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컬렉션으로 세계의 집중을 받았다.

이렇듯 자연적 이미지에 관한 해석은 요지 야마모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천연염색을 통한 색채 전개 및 자연 패턴의 활용 등으로 이세이 미야케와는 다른, 블랙과 화이트를 중심으로 자연의 컬러를 포인트 요소로 두어 생동감 넘치는 자연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두 디자이너 모두 자연적 이미지에 관한 긍정적인 요소를 디자인 모티브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었으며, 웰빙과 자연주의 등 세계의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들이 계속해서 발표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4. 초현실적 이미지









예술사조의 한 흐름으로 대두되는 초현실적 이미지는 에스닉의 표현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의 결합, 혹은 미래적, 은유적 표현을 빗대어 나타나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기하학적 문양을 통해 과장되지 않은 컬러 및 몸과 밀착되는 실루엣으로 그 과격적인 양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인체와 옷이 하나라는 패션철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수공예 요소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그의 초현실적 이미지에 반영한 디테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지 야마모토는 훔날리는 벌크 실루엣과 강한 컬러감의 매치로 그 시각적 화려함을 볼 수 있으며, 인체의 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노출과 감춤의 조화로 초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전의 이미지 요소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의 다양한 표현방법이 반영된 이미지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닉 이미지를 표방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두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와 요지 야마모토는 일본이라는 특수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에스닉의 다른 스타일을 통해 컬렉션을 진행시켜 왔으며, 비교 분석의 가시화한 결과는 다음<표 2>과 같다.

<표 2> 에스닉 이미지 비교분석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p>절충적 이미지</p>	<p>동양의 문양, 색채, 아이템과의 절충</p> 	<p>일본 미의식이 내재된 상태에서의 절충</p> 
<p>전통적 이미지</p>	<p>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양성 추구</p> 	<p>일본 복식의 재현 및 현대적 접근의 시도</p> 
<p>자연적 이미지</p>	<p>오브제 그대로를 활용, 시각적 안정성 추구</p> 	<p>자연적인 패턴과 천연 염색 등 소재 활용의 다각화 추구</p> 
<p>초현실적 이미지</p>	<p>신체의 밀착으로 간소화된 조형미, 편안한 컬러의 매치</p> 	<p>울날리는 벌크 실루엣, 기하학적 문양, 강한 컬러의 매치</p>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성을 추구하며 나타난 에스닉이라는 문화 코드를 배경으로 민족의식이 강한 두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와 요지 야마모토를 선정하여 그들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에스닉 경향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은 타 문화의 수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 전 세계 디자이너들에게 수용되어 하나의 절충주의적 양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는 옷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대중을 위한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으며, 독특한 실험정신을 통해 옷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에스닉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셋째,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는 서양복식의 전통과 원칙을 깨는 혁명적인 실험 주의자로서 동양의 문화와 패션으로 세계 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패션의 예술성,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에서 일본 고유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제시한 디자이너로 평가되며 일본풍의 에스닉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넷째, 컬렉션 비교분석 결과, 에스닉 이미지를 표방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두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와 요지 야마모토는 일본이라는 특수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에스닉 스타일을 지향하며 컬렉션을 진행시켜 왔으나, 각기 다른 그들의 패션 철학은 에스닉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다른 색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상반된 카테고리 안에서 시도

되었던 본 연구가 민족성을 표출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미적 세계를 고찰하는 선행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컬렉션을 전개하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에스닉에 관한 고찰을 후속연구로 제언한다.

주제어 :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에스닉, 세계화 현상, 민족성

참 고 문 헌

- 권기영 (1994)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성, 배수정 (2003)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철학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3(6), 162-167
- 김윤주 (1998)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진 (2000) 요지 야마모토의 작품에 나타난 전통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상아 (2003) 에스닉 트렌드의 응용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연희, 이윤영 (2002) 패션문화, 예학사
- 이영민, 이연희 (2005) 현대 남성 스커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복식문화연구, 13(1), 133-149
- 조원정 (2002) 에스닉(ethnic) 스타일을 응용한 속옷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옥 (2005) 현대 에스닉 패션의 특징 분석, 의류 산업학회지, 7(5), 481-493
- 한경예 (2004) ISSEY MIYAKE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소원, 김영인 (1999)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의류학회지, 23(2), 296-306
- Djurdaja Bartlett (2000) Issey Miyake: Making Things. *Fashion Theory*, 4(2). p 225.
- Leonard Koren (1984) *New Fashion Japan*. Kodansha Int., p.82
- Lynn Gumpert (1998) Design: Issey Miyake takes his signature clothing design on some wild artistic adventure. *ARTnews*. 97(11). p84.
- Mark Holborn (1995) *Issey Miyake*. Tashen. p.24.
[hppt://www.modanews.com](http://www.modanews.com)
[hppt://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http://www.style.com>

(2006. 06. 23 접수; 2006. 08. 01 채택)